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악어의 눈물을 통해 본
현대인의 감정표현부재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장 수 빈

악어의 눈물을 통해 본
현대인의 감정표현부재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장 수 빈

인 준 서

장수빈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현대인들은 자신의 감정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하며 겪게 되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성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뜻과 달리 전달되기도 하고 반대로 타인의 감정을 대신 해석하게 되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한 행위가 현대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무리 없이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생존 본능으로서 서로의 행위를 암묵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았다.

본인은 사회성을 가진 한 구성원으로서 현대인들이 타인에 관심을 가지는 심리를 사회심리학의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대신 전달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정작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감정의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 현상을 현대사회의 부작용의 사례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감정의 표현이 부재중인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감정표현부재’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용어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감정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동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인간의 모습을 함께 다루었다. 그리고 현대인이 타인을 대하는 행동과 타인의 시선으로 대신 표현된 각각의 모습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감정표현부재’ 현상과 같은 부작용사례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작품을 만져보고 흔들어 보며 간접적으로 스스로가 겪는 ‘감정표현부재’ 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은 2015년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방향과 목적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으로 심리학에서 다루는 귀인이론에 의한 인간의 심리를 서술하고 의인화된 인간감정의 표현방법과 더불어 조각의 색채 표현 방법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 III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발전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1) 귀인이론의 인간 심리	3
2) 의인화 된 감정표현	4
3) 현대조각의 색채 사용	6
2. 작품표현방법	
1) 조형적 표현과 의미	8
2) 색채의 표현과 의미	12
3. 작품분석	14
III. 결론	3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JinJoo 62 x 62 x 132cm / 2015	14
【작품 2】 DongHyun / 62 x 62 x 145cm / 2015	17
【작품 3】 MiOk / 40 x 40 x 73cm / 2015	19
【작품 4】 JaeWoo / 40 x 40 x 70cm / 2015	22
【작품 5】 TaeWan / 67 x 38 x 25cm/ 2015	24
【작품 6】 Bora /40 x 40 x 67cm / 2015	26
【작품 7】 melancholic / 30 x 40 x 6cm /2015	28
【작품 8】 A suicide / 40 x 30 x 6cm /2015	30
【작품 9】 A hit-and-run / 40 x 30 x 6cm / 2015	32

도 판 목 록

<도판 1> 무라카미 다카시 <루이비통 모노그램> 2003 7

<도판 2> 제프쿤스 <Sacred heart>1994~2007 356.9 x 218.4 x 121 cm 7

I. 서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적 역할에 따라 각각이 가지는 가치, 태도, 행동, 감정 등 많은 부분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심리학의 귀인이론에서 왔다고 해석했다.

귀인이론에서 인간은 상대방의 행동을 추론하여 그 행동의 진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추론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회성을 가진 인간은 한 사회의 소속된 일원으로 서로가 그러한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한다. 그리하여 타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추론하려는 행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분명 자유로운 감정표현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본인은 귀인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의 행동이 각각의 성향에 따라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때로는 과소평가되어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고 타인에게 해석되어지는 감정에 관해 암묵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사회 부작용의 한 사례로 보았다.

타인의 감정을 해석한다는 것은 역으로 스스로의 감정도 타인에게 대신 해석되어진다는 것인데 그러한 소극적 감정의 표현은 때때로 실제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에게 인간의 감정을 이입하기도 한다.

그 예로 ‘악어의 눈물’이 있다. 본인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생존방식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 타인에 의해 해석되어지도록 허락하는 인간의 모습과 생존 방식의 일부인 먹이를 먹을 때 흘리는 악어의 눈물이 실제와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이 현대인의 부작용 사례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악어의 눈물과 같이 실

제 사실과 다르게 감정이입 되어 해석 된 모습과 그로 인해 ‘감정표현부재’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법으로 악어의 얼굴을 가진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품의 형성 배경, 표현방법, 작품분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형성배경에서는 사회 심리학의 귀인이론을 통한 인간의 심리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의 이입으로 의인화된 표현을 악어의 눈물을 예로 서술한 뒤 조각의 색채 사용에 관한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

두 번째 작품 표현 방법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표현과 의미에 관해 서술한 뒤 작품의 색채 표현과 의미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세 번째 작품 분석에서는 본인의 각 작품의 제작 방법과 설명을 다룰 것이다.

II. 본론

1. 작품 형성 배경

1) 귀인이론의 인간심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회의 소속감이 들게 하고 사회성을 가지며 함께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적응하기 위한 상황적응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타인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가 반복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해 소원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관심을 보이며 스스로를 타인에게 맞춰나가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귀인이론에 관심을 가졌다. 심리학자 하이더 (F.Heider,1985)¹⁾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그 두 동기는 사회현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욕구와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구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예측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귀인이론’을 설명하였다.

귀인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 하기위해서 그 기초 이론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에 하이더는 인간행동의 원인귀속을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내부귀인은 개인의 내부적인 모든 요인으로 기분, 태도, 능력, 성격의

1) Fritz Heider, (1896~1988)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그라츠 대학교에서 24세에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1958년 『대인관계의 심리학』 저서로 사회심리학에서 대인지각, 사회인지의 영역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3판』, 학지사, 2009, P.109

특징, 선택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외부귀인은 타인에 의한 압력, 사회적 여건, 경제적 상황, 날씨등과 같이 개인의 외부적인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분하여 이론정립을 하게 될 정도로 인간은 부단히 타인에 대해 파악하려 하는 심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파악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순되기도 한다.²⁾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려 하는 인간의 심리가 역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 지는 모습에 맞추려하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본인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생긴 ‘감정표현부재’를 본인의 작품으로 표현하려하였다.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개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서 본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과 함께 작품을 완성 할 수 있게 된다.

2) 의인화 된 감정표현 (악어의 눈물)

타인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타인의 감정을 단정 짓지만 직접적인 표현이 조심스러울 때 인간은 타인 이외의 것에 감정을 이입하여 비유할 때가 있다.

의인법은 추상적인 성질이나 동물, 무생물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유법으로 이때 의인화의 대상은 감정 이입을 함으로써 생동감을 갖는다. 의인법은 형태상 완전한 의인화와 불완전한 의인화가 있다. 완전한 의인화는 대상에 인간적 속성이 완전히 부여되어 있는 형태이며, 불완전한 의인화는 부분적으로 인간의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 분류는 형태상의 차이에 국한된다.³⁾

2) 이광자, 엄신자, 전신형,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 문화사, 2002, p.61
한규석, 『사회심리학의이해 3판』, 학지사, 2009, p.109

본인의 작품에서는 완전한 의인화의 형태로 어떤 동물인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머리의 형상을 제외한 외적인 부분을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악어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상태를 이입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인간이 이러한 의인화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대신할 대상을 찾아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한 예로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삶의 방식이 인간의 감정 이입으로 표현된 악어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흔히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로 회자되고 있는데 이를 ‘거짓눈물’이라 표현한다.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래되어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악어는 실제 먹이를 삼킬 때도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인간과 같이 슬픈 감정에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하는 감정의 표출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먹이를 먹을 때 침샘이 눈물샘을 자극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악어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재해석 되어 마치 악어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라도 한 듯이 회자 되어왔던 것이다.

현대인들이 악어의 눈물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밝혀내기 이전으로 거슬러가 오래전부터 악어의 눈물과 같은 표현은 슬하게 회자되어 오던 주제이다.

고대 로마시대 정치가이자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그의 저서 ‘박물지’에서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를 애도하는 눈물을 흘린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셰익스피어 역시 그의 저서 ‘햄릿’, ‘오델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등의 작품에서 인간의 애증과 질투를 다루기 위해 악어의 눈물을 인용하였다.⁴⁾

그렇지만 사실 악어는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3) NAVER 지식백과, 문학비평용어사전, 의인법검색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

4) 두산백과, 악어의 눈물 검색 참조
<http://www.doopedia.co.kr/search>

언급한 저서들은 실제로는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악어와 같은 동물에 인간의 감정을 이입하게 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인간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인간들은 다른 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에게서 오는 대립을 최소화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귀인과정을 거치는 인간은 인간의 감정이 이입된 동물인 악어 또한 관찰하고 나름대로 해석하였다. 인간은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행하는 귀인과정을 악어의 삶의 방식에도 적용하고 있다. 자기표현을 미루고 타인이나 동물의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악어가 흘리는 눈물의 실제 이유와 인간의 감정으로 해석되어 가식적인 눈물로 해석하는 모습은 귀인과정을 거치며 부작용의 사례를 낳게 된다.

본인은 그로인한 ‘감정표현부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악어의 머리를 가졌지만 인간의 형상을 한 작품을 구상하고 실제 이야기가 투영된 현대인의 삶을 대변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하였다.

3) 현대조각의 색채 사용

현대미술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형태를 벗어나 더 다양한 작품의 제작으로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 중 현대의 조각은 돌과 철, 나무를 주로 제작하던 이전의 조각에서 보여준 재료의 순수한 색을 보여주었던 작품에서 보다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시각적 다양성을 가진다.

색채의 다양성을 가지는 장르 중 본인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한 색들은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는 팝아트 작품이었다. 현대조각에서의 색채는 회화의 색채가 조각으로 옮겨온 듯 다양한 색채를 접할 수 있는 조각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색채의 다양성은 비단 조각뿐 아니라 현대미술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팝아트의 조각에서 색채가 사용된 사례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 사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팝아트는 도시 내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면과 파퓰러(Popular), 즉 대중적이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물건의 사용과 소모를 새로운 주제로 삼아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는 너무나 친숙해져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물건들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사물의 세계에 가시성을 회복시켜줌과 동시에 미국사회의 이상주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자 그에 대한 상징적인 평범한 대중문화를 신성화 시킨다. 생활 속에서 인간의 감정적 개입 없이 사물이 사용되듯이 예술품 또한 그러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물로 간주되어 일상의 환경을 구성하는 사물의 세계와 동일화 된다.⁵⁾



<도판1>



<도판2>

그리고 개인사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대중과 미술품을 이어준다.

이렇게 현대미술과 대중문화를 이어주는 작품들에서는 색채의 표현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팝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무라카미 다카시는 자신의 작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컬러를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와 협업하여 다소 올드하고 무거운 느낌이었던 루이비통 모노그램

5) 마르코 메네구초, 『대중성과 다양성의 예술 현대미술』, 노윤희 옮김, 마로니에북스, 2010, p.45

<도판1>을 33가지의 다채로운 컬러로 변화시켜 한 층 밝고 새로운 느낌의 변화를 꾀하여 전 세계 대중에게 그의 색채를 알릴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그의 작품을 떠올리면 다양한 컬러를 함께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프쿤스는 일상적인 사물을 소재로 사용하여 크기를 극대화함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끌었다. 그리고 세이크리드 하트(Sacred heart)시리즈<도판2>에서 보여준 컬러들은 대중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하트초콜릿의 포장지와 같은 익숙한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어 대중에게 주목받았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가 작품으로 제작되어 대중들의 예술을 더 가깝고 편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팝아트에서 보여 지는 특징 중 일상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시각화된다는 점이 대중이 작품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은 익숙하지만 인상적인 컬러의 사용이 대중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작품에서 접목하여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본인의 작품을 관객이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풀어나가며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작품 표현방법

1) 조형적 표현과 의미

사회 심리학의 귀인과정에서처럼 타인의 과도한 관심으로 오는 부작용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사회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부작용 사례인 ‘감정표현부재’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보아지고 해석되는 행위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인간의 감정표현이 스스로가 느끼는 것과 달리 해석되어진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우선 본인 작품 속

사람들의 얼굴을 악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악어의 눈물에서 악어의 삶의 방식이 인간에게 의해 다르게 해석되었다는 것이 귀인과정을 거쳐 인간이 타인을 자신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모순되게 해석하는 행위와 접목하여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해준다.

본인의 작품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 형태는 하체모양을 둥그런 형태의 구로 대신하여 전체적으로 오뎅이의 형태이다. 두 번째는 사각의 테두리 가운데 스프링 위에서 불안한 형태로 서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진 형태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각의 프레임 안에 있는 스프링에 달려 있는 부조 형식의 작품이다.

본인의 작품은 움직임을 통한 예술로 ‘미술 작품은 고정되어 있고 보는 이도 멈춰서 감상 한다’는 관념을 뒤집어 심리, 사회, 과학적 모델로 현대사회의 변화와 역동성을 담아내려고 한 미술사조 키네틱 아트(Kinetic Art)⁶⁾의 움직임을 차용하였다.

그래서 본인작품의 오뎅이 작품은 밀쳐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효과를 위해 스프링위에 서있는 악어의 형태를 구성하였는데 이 두 종류의 형태는 어떤 외부 압력이 가해졌을 때를 제외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외부의 압력이 없이 서있는 악어는 타인의 귀인을 받지 않는 현대인을 대신한다. 하지만 본인의 작품은 외부의 압력이 가해져 귀인과정을 거치면 타인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의 현대인을 대변한다. 즉, 본인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은 작품에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만지고 흔들어볼 수 있게 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본인은 관람객과 함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장치로 오뎅이와 스프링을 사용

6) 마이클 버드, 『예술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김호경 옮김, ㈜시드포스트, 2014, p.162,163 참조

하고 있고 작품을 만져보고 밀어보는 관람객은 본인의 작품을 완성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작품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귀인과정을 거쳐 타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람객에게 있어서 본인의 작품 【작품 1】이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슬픈 신부로 해석 되더라도 그는 틀린 해석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악어의 얼굴을 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라는 효과로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처해있는 상황을 상상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뚝이 형태의 작품과 스프링 위에 올라있는 작품들은 사방에서 갇혀져 있는 곳이 없이 뚫려있어 타인의 손길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론에서 본인은 인간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적응을 하기 위해 타인에게 암묵적으로 감정을 대신 표현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손길을 받는다는 것은 우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작품 3】, 【작품 4】, 【작품 6】의 작품의 표현이 그러하다.

그리고 【작품 5】에서는 오뚝이나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닥에 놓여 시선을 아래로 두어서 보아야하는 이 작품은 타인의 손길을 거부한 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닥에 놓여있다는 것은 관람객이 의식하지 않고 부딪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타인의 의도된 감정표현을 거부하더라도 별수 없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중 사각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듯이 표현된 부조 작품은 위의 작품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테두리는 갇혀 있고 관람자의 시선에서 보여 지는 부분만이 열려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타인과 생활하는데 있

어서 문제가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을 대변하고 있다.

【작품 7】, 【작품 8】, 【작품 9】에서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악어, 자살을 시도 하는 악어, 뺑소니 사고를 내는 악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들은 현대인의 모습 중 소통의 부재를 겪는 일부를 부조의 형태로 표현하여 타인에게 보여 지는 일부분만이 해석되어 지는 사람들을 대변했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본인의 부조 작품은 직접적으로 사건을 대면할 때보다 대중매체의 도움으로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을 때 타인에 의해 해석되는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대중매체가 가지는 대중성이 귀인과정을 대신한 예로 볼 수 있다. 귀인과정이 이미 거처진 후 또 다른 귀인과정을 거쳤을 때 자기적인 해석은 실제의 사실과 더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 결과는 소위 소통의 부재를 겪는 이들에게 더 냉담한 해석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그래서 귀인과정의 모순으로 잘못 해석된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이 되는 폭을 좁히기도 한다.

그리고 악어의 얼굴을 한 모든 작품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눈물 또한 인간 감정으로서의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보여 지고 해석되어 나타나는 현대인의 ‘감정표현 부재’에 따른 부작용을 악어의 눈물로 해석된 것과 동일시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악어로 표현하였다.

흔히 알려져 있는 ‘악어의 눈물’과 본인이 표현 하려고 하는 ‘악어의 눈물’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그저 거짓과 부정적으로만 해석되는 ‘악어의 눈물’과는 달리 본인 작품에서의 눈물은 ‘감정표현부재’를 겪는 현대인을 대변하기 때문에 관람자에 의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귀인이론에서 타인의 행위를 관심을 갖고 해석하려고하는 인간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방법이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관람자가 어떠한 해석을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해석이 '감정표현부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층 나아가 이러한 현대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색채의 표현과 의미

본인은 작품의 색을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다. 악어의 형상을 가졌지만 모든 악어의 피부를 녹색계열로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다른 느낌이 전달이 되도록 화려한 컬러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악어의 의상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색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 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앞서 팝 아트의 색채를 전하면서 대중이 예술에 쉽게 다가간 예로 제프쿤스의 초콜릿 포장 형태의 셰이크리드 하트를 언급했었다. 실제 초콜릿의 크기보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부풀려졌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포장의 느낌과 컬러로 인해 대중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게 하였다. 익숙한 형태와 익숙한 색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제프쿤스를 비롯한 팝아트 작가의 색채표현을 본인의 작품에도 차용하려고 하였다.

【작품 1】, 【작품 2】에서 신부와 신랑의 얼굴은 연분홍과 연하늘색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화사한 신부와 긴장한 신랑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였고 의상에서 하얀 드레스와 검은 양복은 누구나 이를 보고 신랑과 신부의 복장이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악어의 머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신부와 같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듯 제작한 머리카락과 그 뒤에 꽃 장식이 달린 면사포는 누구나 익숙하게 신부 악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신랑의 의상에서도 배를 감싸고 있는 연미복의 재킷 속의 조끼와 허리 밴드는 어느 결혼식의 신랑의 의상에서 봤음직한 모습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3】, 【작품 4】에서의 악어의 얼굴은 같은 노란 계통을 하고 있지만

할머니를 표현한 악어의 피부색을 조금 더 탁하게 표현함으로써 연령의 차이를 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 의상에 있어서 【작품 3】은 어릴 적 본인의 기억 속 할머니의 의상을 떠올려 제작하고 그 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이렇게 악어로 제작된 작품의 피부색은 다양하게 선택하여 팝 아트에서 보여주는 색상의 다양성을 높이고 일상에서 흔히 접해왔던 색을 사용하여 작품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작했다. 머리의 형태는 악어를 닮아있으나 의상에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작품을 관람하는 이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인 작품에서 다양한 설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눈과 눈물의 색은 입체 작품의 화려한 색과 마찬가지로 눈동자의 색깔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데 빨강, 파랑, 보라, 초록 등의 화려한 안구의 색깔은 익숙하고 친근한 의상과는 대비되어 작품 감상 시 자칫 소홀히 넘길 수 있는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눈물로 관객의 시선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3 작품분석



【작품 1】 JinJoo 62 x 62 x 132cm / 2015

【작품 1】 JinJoo

재료: F.R.P, 조화, 락카페인트 채색후 우레탄 마감

크기: 62 x 62 x 132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드로잉을 점토를 이용한 소조 기법으로 제작한다.
- 2) 제작된 점토작업에 석고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3) 9cm 지름의 반구의 형태를 2)와 같은 작업 후 상단 3cm 지름 부분을 사포질 후 눈동자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 뒤 투명수지로 코팅하여 안구를 만들어준다.
- 4) 2) 작업에 3)으로 제작된 안구를 끼워 작품 형태를 완성시킨다.
- 5) 4)에 사포질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컬러링 해준다.
- 6) 12cm x 40cm 의 크기로 절단한 2mm 두께의 포맥스에 열풍기로 열을 가하여 비틀어주어 만든 3장의 포맥스로 면사포 형태를 만든다.
- 7) 6)의 형태 사포질 후 락카 페인트로 컬러링 해준다.
- 8) 전체를 클리어로 코팅 후에 조화를 이용하여 부케와 면사포 장식을 해준다.

작품설명

본인의 전반적인 작업은 악어의 얼굴을 한 현대인이 오뎅이나 스프링의 효과로 큰 힘을 가하면 크게 움직이고 작은 힘을 가하면 살짝 움직이는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움직이는 효과는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모든 관람자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귀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작품은 신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어로 표현하였다. 하얀 웨딩드레스와 두 손에 가지런히 받치고 있는 부케 그리고 가지런히 빗어 넘긴 듯 한 머리

뒤에 보이는 면사포 형태로 신부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현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작품 2】 DongHyun / 62 x 62 x 145cm / 2015

【작품 2】 DongHyun

재료: F.R.P, 락카페인트 채색후 우레탄 마감

크기: 62 x 62 x 145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드로잉을 점토를 이용한 소조 기법으로 제작한다.
- 2) 제작된 점토작업에 석고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3) 9cm 지름의 반구의 형태를 2)와 같은 작업 후 상단 3cm 지름 부분을 사포질 후 눈동자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 뒤 투명수지로 코팅하여 안구를 만들어준다.
- 4) 2) 작업에 3)으로 제작된 안구를 끼워 작품 형태를 완성시킨다.
- 5) 4)에 사포질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컬러링 해준다.
- 6) 전체를 클리어로 코팅 후 마무리한다.

작품설명

이 작품은 일명 삼포세대⁷⁾라고 하는 현대의 젊은이들의 과업 중 하나인 결혼을 앞둔 신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외형적인 표현은 연미복을 연상하게 하는 복장으로 신랑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오뎅이의 효과는 앞서 신부악어의 효과처럼 관람객이 참여하여 작품을 흔들었을 그 힘의 크기에 따라 흔들리다가 결국 멈추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타인의 관심을 받는 현대인도 외압이 없는 상태에서는 멈춘 상태로 타인들의 귀인과정에서 겪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7)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삼포세대 검색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



【작품 3】 MiOk / 40 x 40 x 73cm / 2015

【작품 3】 MiOk

재료: F.R.P, 스프링, 철판, 아크릴채색, 락카페인트 도색후 우레탄 마감

크기: 40 x 40 x 73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드로잉을 점토를 이용한 소조 기법으로 제작한다.
- 2) 제작된 점토작업에 석고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3) 지름 5cm의 반구의 형태를 2)와 같은 작업 후 상단 지름1.5cm에 사포질 후 눈동자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 뒤 투명수지로 코팅하여 안구를 만들어준다.
- 4) 2) 작업에 3)의 안구를 끼워 작품 형태를 완성시킨다.
- 5) 4)에 사포질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컬러링 해준다.
- 6) 지름 6cm 길이 20cm의 스프링을 아르곤 용접하여 캐스팅된 작품의 발 아래에 접합 시킨다
- 7) 철판과 스프링을 이어 흔들릴 수 있도록 제작한다.
- 8) 클리어로 코팅 하여 마무리 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1】, 【작품 2】가 삼포세대의 현대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그들로 인해 황혼육아⁸⁾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비유한 작품이다. 오뚝이 작품과는 움직임의 방법으로 스프링의 탄성으로 표현했다.

할머니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뽀글거리는 머리카락을 표현했고 포대기와 몸빼바지 그리고 털이 달린 발목장화를 표현하여 할머니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8)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노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현상
NAVER 국어사전, 황혼육아검색 참조
<http://krdic.naver.com/search.nhn>

삼포세대에 포기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은 젊은이들에게 황혼육아를 감수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관람객이 작품을 직접 밀고 흔들어보는 행위를 함으로서 타인의 시선이나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작품 4】 JaeWoo / 40 x 40 x 70cm / 2015

【작품 4】 JaeWoo

재료: F.R.P, 락카페인트 도색후 우레탄 마감

크기: 40 x 40 x 70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드로잉을 점토를 이용한 소조 기법으로 제작한다.
- 2) 제작된 점토작업에 석고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3) 지름 5cm의 반구의 형태를 2)와 같은 작업 후 상단 지름1.5cm에 사포질 후 눈동자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 뒤 투명수지로 코팅하여 안구를 만들어준다.
- 4) 2) 작업에 3)의 안구를 끼워 작품 형태를 완성시킨다.
- 5) 4)에 사포질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컬러링 해준다.
- 6) 지름 6cm 길이 20cm의 스프링을 아르곤 용접하여 캐스팅된 작품의 발 아래 에 접합 시킨다
- 7) 철판과 스프링을 이어 흔들릴 수 있도록 제작한다.
- 8) 클리어로 코팅 하여 마무리 해준다.

작품설명

청년실업이 만연한 현대에 이르러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는 젊은이들을 대변한 작품이다. 뒤에 감춘사직서는 비단 젊은이뿐만 아니라 회사를 다니며 스트레스 받는 모든 직장인을 비유하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만한 회사생활, 대인관계, 안정적인 가정 등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한 것들이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외부귀인의 방법으로 이 작품에 외부압력을 가해 직장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작품 5】 TaeWan / 67 x 38 x 25cm/ 2015

【작품 5】 TaeWan

재료: F.R.P, 락카페인트 도색후 우레탄 마감

크기: 67 x 38 x 25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드로잉을 점토를 이용한 소조 기법으로 제작한다.
- 2) 제작된 점토작업에 석고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3) 2의 작업에 사포 후 컬러링을 한다.
- 4)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무리 해준다.

작품설명

【작품 4】에서 청년실업에 탈출한 현대의 직장인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청년실업 중에 있는 현대인을 비유하고 있다.

그 중 흔히 백수라고 말하는 비취업자에게 있어서 세상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본인이 움직임의 효과를 주기 위했던 오뎅이나 스프링과 같은 장치가 없이 바닥에 설치가 된 작품이다. 무게를 가볍게 하여 다른 작품을 감상하던 관람객이 작품을 밀쳐보았을 때 그 힘에 따라 움직임을 가지게 된다. 움직임의 장치는 없지만 타인에 대한 귀인과정을 가장 다양하게 받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6】 Bora /40 x 40 x 67cm / 2015

【작품 6】 Bora

재료: F.R.P, 스프링, 철판, 아크릴채색, 락카페인트 도색후 우레탄 마감

크기: 40 x 40 x 67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드로잉을 점토를 이용한 소조 기법으로 제작한다.
- 2) 제작된 점토작업에 석고 틀을 제작하고 내형 틀에 합성수지를 바른 후 원형작업을 한다.
- 3) 지름 5cm의 반구의 형태를 2)와 같은 작업 후 상단 지름1.5cm에 사포질 후 눈동자를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 뒤 투명수지로 코팅하여 안구를 만들어준다.
- 4) 2) 작업에 3)의 안구를 끼워 작품 형태를 완성시킨다.
- 5) 4)에 사포질을 한 뒤 락카 페인트로 컬러링 해준다.
- 6) 지름 6cm 길이 20cm의 스프링을 아르곤 용접하여 캐스팅된 작품의 발 아래 에 접합 시킨다
- 7) 철판과 스프링을 이어 흔들릴 수 있도록 제작한다.
- 8) 클리어로 코팅 하여 마무리 한 후 조화를 머리에 붙여준다.

작품설명

머리에 꽃을 달고 환자복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된 이 작품은 본인의 지인이 모델이지만 현대인이 자신의 실제 감정을 숨기고 타인에게 감정의 표현을 대신하게 하는 ‘감정표현부재’와 같은 부작용이 낳은 부작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이 되었든 밝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작품이다. 환자복을 입고 있지만 환자는 아니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스프링의 장치 위에 두 발을 가지런히 서 있는 본인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외발로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하였는데 외발로 서 있는 불안함이 감정의 불안한 상태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작품 7】 melancholic / 30 x 40 x 6cm /2015

【작품 7】 melancholic

재료: 스프링, 철판, 아크릴채색, 우레탄채색

크기: 30 x 40 x 6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기본드로잉의 악어의 형태를 일러스트 작업 후 레이저 제단하여 악어 형태의 철판모형을 제작한다.
- 2) 배경이 될 레이저 제단한 철판을 한 면이 비어있는 박스 형태로 아르곤 용접한다.
- 3) 1)의 철판 모형 뒤에 지름 2cm 길이 5cm의 스프링을 용접한다.
- 4) 2) 철판을 우레탄 페인트로 채색한다.
- 5)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3)을 에폭시로 접합해준다.
- 6)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무리 해준다.

작품설명

부조로 제작된 본인의 작품에서의 악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철로 제작된 박스의 정면이 뚫려져 악어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악어의 입장에서는 정면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입체로 제작되어 스프링에 올라가 있는 작품들과는 달리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변의 시선과 외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표현 했다.

그 중 극심한 우울증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사방이 막혀있는 박스안의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에 악어의 머리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사회의 일부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대변하였다.



【작품 8】 A suicide / 40 x 30 x 6cm /2015

【작품 8】 A suicide

재료: 스프링, 철판, 아크릴채색, 우레탄채색

크기: 40 x 30 x 6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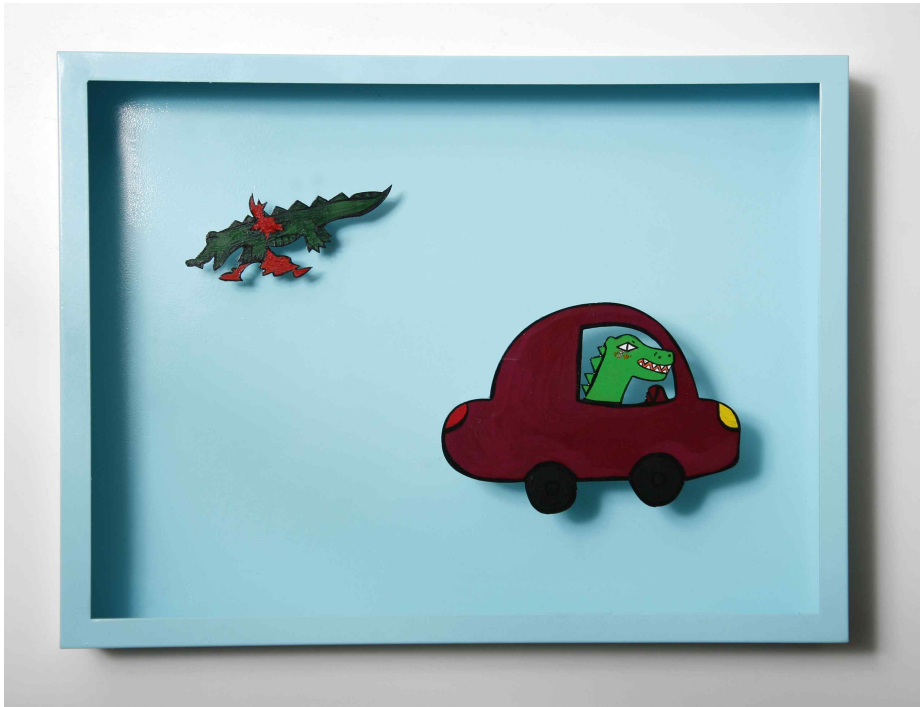
- 1) 기본드로잉의 악어의 형태를 일러스트 작업 후 레이저 제단하여 악어 형태의 철판모형을 제작한다.
- 2) 배경이 될 레이저 제단한 철판을 한 면이 비어있는 박스 형태로 아르곤 용접한다.
- 3) 1)의 철판 모형 뒤에 지름 2cm 길이 5cm의 스프링을 용접한다.
- 4) 2) 철판을 우레탄 페인트로 채색한다.
- 5)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3)을 에폭시로 접합해준다.
- 6)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무리 해준다.

작품설명

이 작품 또한 일부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해 제작한 작품이다.

의자를 받치고 목에 줄을 감고 있는 악어의 모습 옆에 가지런히 둔 구두는 그가 순간의 감정이 아닌 오랜 생각 끝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판으로 된 박스에 갇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타인들의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타인의 시선과 간섭을 피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9】 A hit-and-run / 40 x 30 x 6cm / 2015

【작품 9】 A hit-and-run

재료: 스프링, 철판, 아크릴채색, 우레탄채색

크기: 40 x 30 x 6cm

제작년도: 2015

제작방법

- 1) 기본드로잉의 악어의 형태를 일러스트 작업 후 레이저 제단하여 악어 형태의 철판모형을 제작한다.
- 2) 배경이 될 레이저 제단한 철판을 한 면이 비어있는 박스 형태로 아르곤 용접한다.
- 3) 1)의 철판 모형 뒤에 지름 2cm 길이 5cm의 스프링을 용접한다.
- 4) 2) 철판을 우레탄 페인트로 채색한다.
- 5)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한 3)을 에폭시로 접합해준다.
- 6) 클리어로 코팅하여 마무리 해준다.

작품설명

뉴스에서 접한 뺑소니 범죄자를 담은 작품이다.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은 교통범죄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 속 갇혀있다는 전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회의 일면을 작품 속에 담는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이다. 본인의 작품 전체가 이야기 하고 있듯이 본인을 비롯한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관람객들이 귀인과정을 거치는 타인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실제와 다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속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뺑소니 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한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제작해보았다.

IV. 결 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동물처럼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리 수없이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위해 자기 자신만의 감정의 표현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여 생겨나는 사회의 부작용 사례를 ‘감정표현부재’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본인의 작품으로 대신 표현해보고자 하였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본인과 같은 사람에게 ‘감정표현부재’로 오는 잘못 해석된 표현들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본인의 작품들로 대변되어 제작된 작품으로 ‘감정표현부재’로 오는 공허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본인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으로 순간순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왔던 우리들 모습을 담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을 접하는 관객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작품이 관람객과 함께할 때 더 나은 완성도를 보여 줄 수 있고 더 다양하게 해석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작품이 의미하는 정답을 찾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함께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나 작품으로 들어와 나를 이야기 하고 타인을 이야기 하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의 작품을 공감하는 관람객들도 각각의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그들의 이야기로 재해석된 나의

작업을 얼마나 더 공감할 수 있게 제작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표현 방법과 연구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감정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더 폭 넓게 표현하고 관람객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번역본》

- 1) 마르코 메네구초, 『대중성과 다양성의 예술 현대미술』, 노윤희 옮김, 마로니에북스, 2010
- 2) 마이클 버드, 『예술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김호경 옮김, (주)시드포스트, 2014
- 3) 엘리엇 앨런스, 『인간, 사회적 동물』, 박재호 옮김, 탐구당, 2014

《단행본》

- 1) 김옥진, 임홍순, 『현대인의 행동과 심리』, 민지사, 2006
- 2) 이광자, 엄신자, 전신형, 『현대사회심리학』, 아세아 문화사, 2002
- 3)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3판』, 학지사 2009
- 4) 한국 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홈페이지 및 기타》

- 1)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
- 3)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search.nhn>

ABSTRACT

Study on the 'absence of emotional expression' of the modern crocodile tears over

-On The basis of my work-

Jang, soo-bin
Dep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live out the society in the midst of the fierce competition, contemporary men have become passive and cautious in revealment of their emotion. Moreover, the tendency of dormant in expressing their own feeling have also surfaced in order to maintain the peer relationship within the society. This characteristic tendency resulted in one's emotion delivered diversely from their will and often in the contrary, one would subjectively interpret others' emotions. This artist comprehended that these conducts have been implicitly allowed amongst the contemporary men as an instinct of survival to live as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 a rather stressless manner.

This artist as an entity with sociality have explained the contemporary men's interest to others with 'the attribution theory' of social psychology. Moreover, based on the observation where contemporary men trying to convey others' emotions instead of themselves whilst in having hardship in expressing their own emotions, interpreted the phenomena of inactive emotional expression as the prime example of side-effect of modern society.

And to comprehensively explain the human status of vanished emotional expression, the term 'Absence of emotional expression' was made to use. By using this term, the methodological approach to emotional expression of modern men was described and in the extent to this context, spectacle of empathy towards animals were also covered. Moreover, trial of showing the interrelationship and its effects between the action towards others and the substituted expression from the peer views amongst modern men were conducted.

Therefore the research implication was aimed at understanding and finding the solution for the indirectly experienced 'absence of emotional expression' phenomena, by touching and shaking the art piece as a way of recognition method for side-effects such as the 'absence of emotional expression.'

This thesis was composed hereinafter based on this artists' art works produced in 2015.

Chapter I Introduction is a description of the research direction and its purpose.

Chapter II Body is on the background of work formation where depiction of human psychology based on the attribution theory from psychology, and personified expression of emotion along with the sculptures' color expression method.

Chapter III Conclusion is on the summary of the thesis contents and the challenges and proposed direction in terms of this artists' expression method in the development of works.